

가족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 - 기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

김 광 숙¹⁾ · 조 원 정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특히 결혼한 여성근로자는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기혼 여성근로자의 스트레스는 직장인으로서 갖는 직무스트레스와 기혼여성으로서 갖는 가정관련 스트레스의 이중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Jung, Kim, Lee, Lee, & Kwon, 2001). 가정이나 가족의 중요한 역할이 가구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 내야 할 가사 및 양육 등 남성에게 비해서 많은 역할 또는 가족과의 의견대립 등으로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Robinson, Yerby, Fieweger와 Somerick(1977)은 종일제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이 일주일에 평균 40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또 다시 36시간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보냄으로써 두 가지의 종일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였고 Ross와 Halatin(1982)은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의 합으로 측정되는 스트레스가 여성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기능장애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면서 가족스트레스가 근무 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남성과 비교하여 조사한 Roxburgh(1996)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성의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두지 않은 여성근로자 및 자녀를 둔 남성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 여성근로자의 가족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와 함께 여성건강 및 산업간호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남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15개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Martocchio와 O'Leary(1997)은 연구분석 결과 남녀 성별에 따른 생리적·심리적 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서술하면서 이는 여성의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인 가족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연구가 부족한 이유도 있을 것임을 제시하였다. 기혼 여성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이와 관련된 건강상태 평가를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뿐 아니라 가족스트레스를 함께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이에 대한 몇몇 시도가 있어 왔으나 가사활동 수행시간 측정(Lundberg, Mardberg, & Frankenhauseret, 1994), 가족기능(Jung et al., 2001) 등의 국소적인 측정에 그치고 있어 기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 측정이 실증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가족스트레스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기혼 여성근로자의 가족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가족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

주요어 : 가족스트레스, 도구개발, 여성근로자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연구원, 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투고일: 2005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06년 1월 26일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여성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가족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 여성근로자

기혼 여성근로자의 가족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생산직종에 근무하며 기혼인 여성 근로자로서 연령은 55세 미만인 근로자로 정하였다. 생산직종으로 제한한 이유는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등의 직종에 따라 교육·경제적 상황 및 스트레스 요인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Heo, Chang, Ku, & Park, 1996; Jung, Lee, & Woo, 1998)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함이었으며 정년퇴임이 시작되는 연령인 5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 가족스트레스

가족이라는 사회 체계 내에서 개인과 가족이 발달 및 변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족체계내의 긴장과 압력을 가족 구성원이 인지하는 정도이며 가족의 안정된 상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Boss, 1988).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혼 여성근로자의 가족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근로자의 가족스트레스 관련 문헌

가정은 일차적인 사회환경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통한 사회화에 도움을 주며 가족 구성원들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이지만(Lee, 1995), 산업화 이후 성인 구성원들 모두가 직장을 가지게 됨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상호지지적인 가족 기능에 있어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더욱이 여성 교육수준의 증가, 출산 이후의 지속적인 취업 등으로 여성들이 전통적인 모성 역할에 대해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었고, 가정 밖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나 이러한 역할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자녀양육은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다(Korean Academy of Family, 1994).

기혼 여성근로자의 가족스트레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측정이 시도되어 왔다.

먼저, 직장과 가정에서 행하는 총 일의 양으로 스트레스의 합을 측정하기도 하였는데, Lundberg 등(1994)은 사무직 남녀 근로자의 총 일의 양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직장,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일을 위해 1주 동안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총 일의 양은 여자가 주당 69.3시간이었고 남자는 67.4시간으로 측정되었으며, 회사 일을 제외한 비급여 활동 시간이 여자 30.9시간, 남자가 22.1시간으로 여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를 둔 48쌍의 기혼근로자 부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사한 Almeida와 McDonald(1998)는 가족요구도(family demands), 가정일 부담(home overloads), 배우자와의 긴장도(tensions with one's spouse)의 발생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가정스트레스를 평가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가족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예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만, Jung 등(2001)이 기혼 여성근로자 185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련요인 및 대처전략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스트레스 증세에 영향을 미치는 3개의 스트레스 요인 중 가족기능을 비롯한 가족적 특성을 포함한 경우가 있었다.

가족스트레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가족스트레스의 일부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혼취업자의 역할 및 배우자 역할, 결혼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Han(1989)은 기혼여성의 역할을 경제적 역할, 가사역할, 자녀양육/사회화 역할, 우애적 역할로 나누면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소비적인 역할에 국한시키고, 가사역할은 음식준비, 세탁, 청소를 포함하고 우애적 역할은 남편의 건강관리, 동반자로서 남편에게 정신적인 힘을 주는 것을 포함하며 자녀양육은 특히 자녀가 유아일 때 양육행위의 모든 책임이 아내에게 부과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urr(1970)는 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재정관리, 사회활동, 동료애, 자녀양육, 성관계, 가사일 수행 등 6개 요인을 하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개인적 특성, 결혼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Park(2001)은 결혼관련 특성으로 남편의 지지도, 가사조력자 유무, 남편의 가사참여정도, 가사분담정도, 가사분담의 공평성 인지, 성 역할 태도, 부부간의 권력형태,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 등을 꼽았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부부의 결혼만족도, 기혼여성의 역할,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등 한 가지 역할 측면에서 조사하거나 가정에서의 총 일의 양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측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가족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도구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 중 가족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Lee & Park, 1988; Robinson, 1997)가 있

나 하부요인 중 하나로 가정 및 가족요인을 추가하여 측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가족의 기능 수행정도를 측정하고자 한 Feetham(1988)의 가족기능조사표가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경제적 역할, 권위상실, 자녀문제 등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의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을 검토하여 가족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문항 및 영역을 추출하였다<Table 1>.

문항개발과정

총 8편의 문헌분석을 통해 배우자 관계, 자녀양육 및 관계,

역할, 가족 및 친지관계, 정서적 측면, 건강문제 및 여가활동, 환경 등과 관련된 37개 문항의 가족스트레스 내용을 구성하였다. 간호학 교수 4인과 예방의학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서 이들 문항을 그 의미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항을 조합, 가족구성원의 종류에 따라 크게 지장을 받는 용어를 수정하고, 사회적 지지 등 다른 변수로 측정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쳐 27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도구의 타당도 검증 및 1차 문항 선정

간호학 교수 4인과 보건관리자 6인으로 하여금 내용타당도 평가표(Content validity index)를 이용하여 각 문항의 측정목적

<Table 1> Content of the family stress on literature review

Source	Content related to the family stress
Almeida & McDonald(1998)	Home stress: ▫ Family demands ▫ Home overloads ▫ Level of tension with one's spouse
Lundberg et al(1994)	Household affairs: ▫ Chores ▫ Child care ▫ Unpaid activity
Han(1989)	Married woman's roles: ▫ Economic role ▫ Housekeeping role ▫ Fraternity ▫ Rearing
Park(2001)	Marriage 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couple's satisfaction: ▫ Level of husband's support ▫ Existence of housework helper ▫ Husband's sharing level in household affairs ▫ Sharing the chores ▫ Fair distribution on housework ▫ Attitude to the sex role ▫ Type of couple power ▫ Satisfaction at talking with spouse
Burr(1970)	Couple's marriage satisfaction: ▫ Financial management ▫ Social activity ▫ Comradeship ▫ Bringing up children ▫ Sexual relationship ▫ Performance of housework
Family Stress Research Institute(1995)	Father's stress: ▫ Matter of children ▫ Job working ▫ Loss of authority as a father ▫ Sense of alienation, isolation ▫ Stress from the rearing children
Feetham Family Functioning Survey(1988)	▫ Time spent on conversation with family and friend, doing housework ▫ Time spent with family and neighborhood, on leisure ▫ How much time do they(spouse, family, and friend) help in domestic chores ▫ Time spent with health professional, on sick ▫ Children's problem, time of absence from school ▫ Number of disagreement with spouse ▫ Time could not work in person and one's spouse ▫ Amount of emotional support by friend, family, and spouse ▫ Amount of time interfered with daily routine ▫ Amount of time interfered with spouse's daily routine ▫ Satisfaction in marriage and sexual relationship with spouse
Kim(1994)	Family assessment's domain: ▫ Family structure & development cycle ▫ Maintaining of family system ▫ Interrelationship ▫ Support ▫ Coping & adaptation ▫ Health management ▫ Dwelling environment
Domain of preliminary items derived the literature	① Relationship with spouse: conversation, attitude to sex role, agreement ② Rearing, matter of children ③ Role: workload on household affairs, economic role ④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family-in-law ⑤ Emotion: loss of authority, sense of alienation, loneliness, comfort ⑥ Health problem and leisure activity ⑦ Environment

과의 관련성 점수를 매기도록 하여 타당도를 계산하였다. 각 문항의 타당도 정도는 ‘매우 타당하다’ 4점, ‘대체로 타당하다’ 3점, ‘별로 타당하지 않다’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으로 하여 타당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값이 80% 이하인 문항과 문항의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것으로 지적된 문항은 삭제하였다. 이 결과로 예비도구 27개 문항 중 3개 문항을 삭제하여 24개 문항이 1차 도구로 선정되었다.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 생산직 기혼여성 근로자 3인으로부터 도구의 문항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았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공업중심의 2차 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55세 미만의 생산직 기혼 여성근로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14개 사업장을 선정한 후 해당사업장에 고용된 생산직 기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으로서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하였으며 도구의 항목 중 부모로서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 있어 첫 째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인 근로자로 제한하였다. 근로자의 주요 업종은 전자조립, 공산품 제조 및 가공, 식품생산 및 포장, 포장재 가공 등이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근로자 517명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6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내용이 부족한 28부를 제외한 240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방법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C+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 도구의 신뢰도와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α 계수 및 문항간 상관계수(item total correlation)로 확인하였으며, 도구의 구성타당도 평가를 위해 Varimax 회전에 대한 주성

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2세 이었으며, 종교는 불교 78명(32.5%), 기독교 56명(23.3%), 천주교(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134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 59명(24.9%)이었다. 평균 결혼 년수는 19.2(± 6.7)년이었으며 10~19년 된 경우가 118명(49.2%), 20년 이상인 경우가 115명(47.9%)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월 급여는 78만 4천 원이었으며 최소 월 46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이었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191명(79.9%), 부부와 자녀 및 시부모가 사는 경우가 32명(13.3%), 부부만 사는 경우가 15명(6.3%), 이었다. 동거가족 수는 평균 4명(± 1.1)이었으며, 자녀수는 평균 2.2명(± 0.7)이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대상자는 12명(5.0%)이었다. 가족전체의 평균 월수입은 243만원이었으며, 응답자의 월 평균 업무시간은 48.8시간으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 도구의 문항분석

각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30미만의 경우 해당 문항은 각 척도 영역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corrected item to total correlation coefficient)가 .30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동시에 해당 문항을 제외시켰을 때의 alpha(ch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값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문항을 조정한 결과 전체 24문항 중에서 21문항이 선정되었다<Table 2>.

● 도구의 요인분석

- 요인추출 및 회전

<Table 2> Corrected item in the concept of family stress to total correlation

Item	Item Content	Corrected item to total correlation coefficient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q1	I have a time to talk with my family about my concern and problem (나의 관심과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다)	.548	.839
q2	My family do together leisure and hobby activity (우리 가족은 오락·취미활동을 함께 한다)	.425	.843
q3	My family have dissolved by conversation when we got a conflict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대화로써 해결한다)	.501	.841
q4	Household affairs have disturbed in my daily life (가사일로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 방해받는다)	.352	.846
q5	I have felt loneliness in my house (나는 가정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539	.839

<Table 2> Corrected item in the concept of family stress to total correlation(continued)

Item	Item Content	Corrected item to total correlation coefficient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q6	Residential circumstance of my house guarantee my private life (우리집의 주거환경은 나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433	.843
q7	I feel comfortable at home (나는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620	.837
q8	I am satisfied with relationship of my family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체로 만족한다)	.473	.842
q9	There is being domestic trouble in my family (우리 가족에는 불화가 있다)	.462	.842
q10	I am annoyed by trouble with relatives (친척과의 불화로 시달린다)	.339	.846
q11	My family have had much to do with the neighbors (이웃들과 교류를 하며 지낸다)	.313	.847
q12	My family make a decision democratically (우리 가족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이다)	.416	.843
q13	My family expect rationally sex roles and rights (우리 가족은 남녀의 역할과 권리를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304	.848
q14	I feel loss of my authority as parents (나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느낌을 받는다)	.397	.844
q15	My family have been proud of me (우리 가족은 나를 자랑스러워 한다)	.501	.841
q16	I should use a lot of time for my family (나는 가족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006	.857
q17	Each of my family member have done one's work by oneself (우리 가족들은 자기 일을 스스로 잘 한다)	.537	.839
q18	My family expects too much from me (가족들은 나에게 과중한 역할을 기대한다)	.401	.844
q19	My family members share house chores on family events (우리 가족은 집안의 대소사 때 일을 함께 나눈다)	.502	.840
q20	My family have helped me when I had difficulty in doing housing affair (내가 힘들 때 가족들은 나를 돕는다)	.529	.839
q21	My family is harassed with economic and material matters (우리 가족은 경제적·물질적인 어려움에 시달린다)	.301	.848
q22	I have something to worry about my family (자녀·가족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	.399	.844
q23	We have family members who have chronic diseases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있다)	.201	.852
q24	My family go to see doctor or pharmacist for health problem (우리 가족은 건강문제 때문에 의사, 약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216	.851

문헌고찰,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및 문항분석을 통해 개발된 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1개 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모상관 행렬의 단위행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틀렛(Bartlett)검정을 시행하였다. 문항 21개에 대한 단위행렬 검정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단위행렬이 아닌 구형성을 나타낸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이므로 요인분석을 적용할 수 있었다(KMO(Kaiser-Meyer-Olkin)=.871, Bartlett Test of Sphericity=1462.250, p=.000).

요인분석의 방법은 요인수와 정보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고유값(eigenvalue)이 1.0이상의 요인 5개를 추출하였다. 이와 함께 고유값의 scree plot을 볼 때 4번째 고유값 하

강 이후 거의 수평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본 가족스트레스 도구에서 설명할 요인을 4개로 결정하였다. 4개 요인으로 요인수를 지정하여 Varimax 회전하여 얻은 결과<Table 3>에서 가족스트레스의 총분산에 대해서 요인 1은 28.1%, 요인 2는 10.6%, 요인 3은 6.3%, 요인 4는 5.5%를 설명하여 4개 요인이 총 분산의 50.5%를 설명하였다<Table 4>.

• 요인 명명

요인의 명명시에는 요인부하량이 클수록 그 요인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으며(Waltz & Bausell, 1981), 높은 요인부하량을 갖는 문항들의 공통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요인의 이름을 정한다(Lee, Jung, Kim, Song, & Hwang, 2002). 따라서 각 요인별로 분류된 문항들 중 요인부하량이

<Table 3> Factor analysis : item loadings on four factors

Item	Item Content of Each Factor	Factor			
		1	2	3	4
q1	I have a time to talk with my family about my concern and problem	.719			
q3	My family have dissolved by conversation when we got a conflict	.664			
q2	My family do together leisure and hobby activity	.661			
q19	My family members share house chores on family events	.627			
q20	My family have helped me when I had difficulty in doing housing affair	.610			
q15	My family have been proud of me	.579			
q17	Each of my family member have done one's work by oneself	.482			
q22	I have something to worry about my family	.382			
q14	I feel loss of my authority as parents		.662		
q10	I am annoyed by trouble with relatives		.657		
q9	There is being domestic trouble in my family		.617		
q5	I have felt loneliness in my house		.583		
q18	My family expects too much from me		.559		
q21	My family is harassed with economic and material matters		.522		
q12	My family make a decision democratically			.690	
q7	I feel comfortable at home			.652	
q8	I am satisfied with relationship of my family			.651	
q11	My family have had much to do with the neighbors			.650	
q13	My family expect rationally sex roles and rights			.559	
q6	Residential circumstance of my house guarantee my private life			.479	
q4	Household affairs have disturbed in my daily life				.665

<Table 4> Eigen value, percent of the total variance explained, cumulative percent of factor

Factor	Eigen Value	Percent of the total variance explained	Cumulative percent
Cooperation	5.894	28.069	28.069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2.233	10.631	38.700
Democratic and comfortable environment	1.330	6.335	45.035
Disturbance of own living	1.150	5.478	50.513

큰 문항부터 순서대로 참고로 하고 다른 문항들의 의미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요인을 명명하였다.

제 1요인에서는 “나의 관심과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대화로써 해결한다”, “우리 가족은 오락·취미활동을 함께 한다”, “우리 가족은 집안의 대소사 때 일을 함께 나눈다” 등이 요인부하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문헌고찰 결과 나타났던 가족 협동의 속성에 근거하여 의논, 대화, 함께 함의 속성을 가진 요인으로 협력으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에서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느낌을 받는다”, “친척과의 불화로 시달린다”, “우리 가족에는 불화가 있다” 등의 문항이 요인부하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문헌고찰 결과 확인되었던 가족 및 친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및 권위 상실의 속성을 가진 요인으로 관계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제 3요인에서는 “우리 가족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이다”, “나는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로 나타나 문헌고찰에서 보인 역할태도, 편안함, 주거환경 등의 속성을 가진 요인으로 민주적이고 편안한 환경으로 명명하였다. 제 4요인은 “가사일로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 방해받는다”의 한 문항으로

방해받음으로 명명하였다. 문헌고찰에서 나타났던 건강문제의 속성은 이를 측정할 2개 문항이 앞에서 기술한 도구의 문항 분석에서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30이하로 나타나 삭제되었으므로 본 요인 명명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각 요인에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과 초기 범주화 내용을 비교 분석 후 추론된 각 요인의 명명결과는 ‘협력’(8문항), ‘관계만족’(6문항), ‘민주적이고 편안한 환경’(6문항), ‘방해받음’(1문항)이었다.

● 요인의 독립성과 신뢰성

요인간의 독립성을 파악하기 위한 4개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요인간의 상관계수가 .108 ~ .501로 나타났다 <Table 5>. 상관계수가 .50이상인 경우 중등도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도구의 요인들은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도구의 신뢰도

본 도구 전체 21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86이었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s α .73 ~ .81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5> Factor correlation matrix

(n=240)

Factor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Cooperation	1.000	.445 (p= .000)	.501 (p= .000)	.275 (p= .000)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1.000	.297 (p= .000)	.433 (p= .000)
Democratic and comfortable environment			1.000	.108 (p= .095)
Disturbance of own living				1.000

<Table 6> Each factor's reliability

Factor	Number of Items in Scale	Alpha Coefficient
Cooperation	8	.810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6	.730
Democratic and comfortable environment	6	.750
Disturbance of own living	1	N.A.
Total	21	.864

* N.A. : not available

논 의

본 연구에서 가족스트레스 도구의 검증을 위해 생산적 기혼 여성으로서 첫 자녀가 학령기 이상인 대상자를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직업특성과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가족스트레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고찰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24문항의 예비도구가 작성되었고 도구의 내적일관성 평가를 통해 21문항의 도구가 선정되었다. 요인분석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요인들의 총 분산설명력은 50.5%이었다. 4개 요인은 협력, 관계만족, 민주적이고 편안한 환경, 방해받음으로 구분되었다.

제 1요인은 협력으로 전체 설명 분산 중 28.1%를 차지하였다. '협력'영역은 가족 내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때는 의논하고 대화로써 해결하며 여가시간은 함께 하는 가족 역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지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의미를 가장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Feetham(1988)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구성원과의 대화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양,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정도, 가족구성원이 가사일을 돕는 정도 등을 가족기능조사표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Park(2001)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가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제 2요인은 관계만족으로 전체 설명 분산 중 10.6%를 차지하였다. 자녀로부터 받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상실되는 경험, 가족구성원 간 또는 친척과의 불화, 가정에서 느끼는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와 연결된 과중한 역할 등의 문항이 모두 요인부하량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 본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 친지와와의 구체적인 관계의 만족도, 그들로부터 느끼는 물질적, 정서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미취학 자녀양육의 부담이 가족스트레스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첫 번째 자녀가 학령기 이상인 대상자만을 선정하였다. Family Stress Research Institute(1995)에서 자녀를 둔 기혼 남성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항목에서 부모로서의 권위상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함께 고려할 때 자녀양육의 신체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자녀로부터 받는 부모로서의 권위에 관한 느낌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구성원 및 친척과의 불화에 관한 내용을 기혼자의 만족도 및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포함시킨 예는 많지 않지만 Kim(1994)이 가족사정 영역 중 시댁 가족 및 친척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항목을 가족의 상호작용 및 교류 영역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Feetham(1988) 또한 가족 및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의 양을 포함하여 가족기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 3요인은 민주적이고 편안한 환경으로 명명하였는데 가족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남녀의 역할을 기대하여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웃과의 교류하는 지를 함께 포함한다. 또한, 주거환경이 사생활을 보장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는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됨이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Park, 2001), Kim(1994)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가족구성원의 탄력적인 역할기대, 사생활이 보장된 주거환경의 내용을 가족사정 영역에 포함하였다.

제 4요인은 방해받음으로 "가사일로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 방해받는다"의 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이다. 본 항목은 가사시간의 절대적인 양의 많음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개인생활의 피해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기혼 근로자의 가족스트레스를 가사일의 총 양으로 측정하고자 한 시도(Lundberg et al., 1994)와 가정일 부담이 가정스트레스의 내용으로 평가된 경우(Almeida & McDonald, 1998)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Almeida와 McDonald(1998)의 연구에서 여성근로자의 가정스

트레스가 주중에 비해서 주말에 증가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주일간의 근무동안 쌓인 피로를 풀거나 다른 필요한 활동을 해야 할 주말동안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으로써 가족스트레스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문항분석의 결과로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나는 가족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의 문항의 평균 값이 4점 만점에 2.9점으로 24개 문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일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역할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7개의 예비하위 개념과 최종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4개 요인을 비교해 보면, 대화 및 의견일치, 여가활동, 집안일 등의 내용이 '협력'이라는 공통 속성으로 묶어지면서 서로 도움, 자부심, 자기 일 스스로 하기 등의 구체적인 특징이 드러났다. 자녀문제 및 관계, 가족 및 친지 관계, 부모로서의 권위, 소외감 및 고독 등의 내용이 '관계만족'이라는 큰 범주로 통합되었으며 성역할 태도, 편안함, 환경 등의 내용이 '민주적이고 편안한 환경'으로 나타나 가족환경이 물리적인 주거환경 뿐 아니라 합리적인 규칙과 기대, 이웃교류까지 포함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문헌고찰과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가를 통해서 1차로 선정된 24개 문항에는 가족의 건강문제를 측정하는 2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문항분석 단계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연구의 대상이 직장생활을 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위의 문항에 대해 대상자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서 전체문항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개발된 도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의 대상인 표본의 수가 높아야 한다. 일반화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의 크기는 변수 즉 문항 수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Lee et al., 2002), Comrey(1988)는 40개 미만의 항목을 포함한 경우 200 이상의 표본수가 적당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40개의 표본을 사용하였으므로 요인분석을 위해 충분한 표본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족스트레스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유사한 개념을 다른 문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파악되지 않은 내용 및 앞으로 새로이 확인될 문헌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작업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문항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 여성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신뢰

도와 타당도가 높은 가족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구 개발을 위해 관련문헌 고찰로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문항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정된 최종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생산직 기혼 여성근로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40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PC+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개발과정을 통하여 가족스트레스를 측정하는 21개의 문항을 확정하였으며, '협력'(8문항), '관계만족'(6문항), '민주적이고 편안한 환경'(6문항), '방해받음'(1문항)의 4개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86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가족스트레스 도구 척도의 일반화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 본 도구의 준거 타당도를 더 확인하기 위해 가족스트레스와 관련된 다른 변인과의 상관연구가 필요하다.
- 기혼 여성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할 때 직무스트레스 뿐 아니라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사정을 함께 하여 건강상담 및 근로여건 개선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lmeida D. M., & McDonald D. (1998). Weekly rhythm of parent's work stress, and parent-adolescent tension.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82, 53-67.
- Boss, P. G. (1988). *Family stress management : Family studies text series 8*.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Burr, W. R. (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 Marr and Fam*, 32(Feb.), 29-37.
- Chung, H. J. (1986). *A study for role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rried working women*. Seoul :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Comrey, A. L. (1988). Factor analytic methods of scale development in personality and clinical psyc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754-761.
- Family Stress Research Institute (1995). *Stress in Fathers*, Seoul : Changjisa.
- Feetham, S. L. (1988). *Feetham family functioning survey (instrument)*. Chicago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Nursing.
- Han, N. J. (1989). *Studies for modern Korean family*. Seoul : Iljisa.
- Heo, S. O., Chang, S. S., Ku, J. W., & Park, J. I. (1996). The assessment of stress between white and blue collar workers by using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J*

- Korean Prev Med*, 29(3), 609-616.
- Jung, H. S., Kim, H. Y., Lee, H. K., Lee, Y. J., & Kwon, Y. S. (2001).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the factor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of married working women. *J Korean Occupational Health Nurs*, 10(1), 93-109.
- Jung, Y. Y., Lee, J. Y., & Woo, K. H. (1998). The association of job characteristics and stress indicators in TV manufacturing plant workers. *J Korea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 10(1), 29-40.
- Kim, E. S. (1994). *Family and Community Health Management*. Seoul :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Korean Academy of Family (1994). *Modern family and society*. Seoul : Kyoyook Gwahak Sa.
- Lee, E. H., Jung, Y. H., Kim, J. S., Song, R. Y., & Hwang, K. Y. (2002). *Statistical methods for health care research*. Seoul : Koonja Publishing Inc.
- Lee, J. M., & Park, H. K. (1988). A study for instrument development of job stress(II). *Collection of Learned Papers <Social Science Section>* (pp. 43-62). Gwangju : Cheonnam University.
- Lee, S. H. (1995). *Comparative study for social support, stress, and health in high school student according to living with family*. Daegu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Lundberg, U., Mardberg, B., & Frankenhauer, M. (1994). The total workload of male and female white collar workers as related to age, occupational level, and number of children. *Scandinavian J Psych*, 35(4), 315-327.
- Martocchio, J., & O'Leary, A. (1997). Sex differences in occupational stress : A meta-analytic review. *Applied Psych*, 74, 495-501.
- Park, E. O. (2001).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quality of marital role of married, working women in Korea. *J Korean Women's Health Nurs*, 7(1), 80-92
- Robinson, J. P., Yerby, J. Fieweger, M., & Somerick, N. (1977). Sex role differences in time use. *Sex Roles*, 3, 443-458.
- Ross J. K., & Halatin T. (1982). When family stress affects worker productivity. *Supervisory Management*, 27(7), 2-8.
- Roxburgh, S. (1996). Gender differences in work and well-being: Effects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J Health and Soc Behav*, 37(September), 265-277.
- Waltz, C. F., & Bausell, R. B. (1981). *Nursing research : Design, statistics, and computer analysis*. Philadelphia : F.A. Davis Company.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to Measure Family Stres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Kim, Gwang Suk¹⁾ · Cho, Won Jung²⁾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Environments & Systems, The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 Professor Emeritus,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Even though a number of studies have suggested that appropriate measuring instruments of family stress for working women have to be develop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s used have not been consistently examined.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sensitive instrument to measure family stress for married working women, and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Method:** The items generated for this instrument were drawn from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wenty four items were developed through evaluation by 10 experts and twenty one items were finally confirmed through item analysis. Psychometric testing was preformed and confirmed with a convenient sample of 240 women employed in the industrial sector. **Result:** Four factors evolved by factor analysis, which explained 50.5% of the total variance. The first factor 'Cooperation' explained 28.1%, 2nd factor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10.6%, 3rd factor 'Democratic and comfortable environment' 6.3%, and 4th factor 'Disturbance of own living' 5.5%. Cronbach's coefficient of this instrument was 0.86. **Conclusion:** The study support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Key words : Family stress, Instrument development, Working wome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Gwang Suk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342 Fax: 82-2-392-5440 E-mail: gskim@yumc.yonsei.ac.kr